

글로벌 경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p>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세인</p> <p>AI란 인간의 지적 사고 과정을 모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AI의 존재를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인지한 계기는 2016년에 이뤄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이 우세하게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얻어냈다. 이는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컴퓨터의 발전을 우리사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우리 주변에 AI 보이스빅스비, 스마트 팜, 로봇수술 및 최근에는 챗GPT 등 AI가 빠르게 보급되었고,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p> <p>먼저 노동 분야에서의 AI의 영향력을 보면, 과기부·NIA의 통계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0인 이상 민간기업의 2.7% 수준에 머무르고, 25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는 도입률이 약 20%에 달한다. 통계청의 기업활동 조사에서도 2021년 기준으로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3.8%만이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25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면 약 8%에 달한다. 특히 5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의 인공지능 영향률은 20%에 달한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앞선 공식 통계와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 도입률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치를 보면 기업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했으며, 매출도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인력 축소 및 신규 채용의 수 역시 감소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률이 증가할수록,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등 전문직 고용이 증가하여 관련 직종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의 도입은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켜 기업의 이윤 창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일반사무직의 신규 채용 및 서비스업의 고용인원을 감축시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p> <p>이처럼 AI가 우리사회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26년도 교육부의 업무 계획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AI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AI 중점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 학·석·박사 패스트트랙(통상 최소 8년 → 5.5년, AI 영재 진학 시스템과 연계 시 고등학교부터 7.5년 만에 박사 배출)을 신설하고, 박사후 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을 강화한다. 융합학부 융합 교육 과정 개발과 대학원의 융합 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 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실무 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 대학 (27개)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통상 6년 소요되는 유학생의 영주 비자 획득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을 신규로 적용한다. 위와 같은 시도들을 통해 학생들과 교육이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개인과 학교,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도입되는 기술에 발맞추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통계학부도 위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학과 수업에 AI 관련 과목들을 신설하거나, 융합된 수업을 개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제학 이론들을 학습하는 것과 더불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소통하는 종합적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제통계학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 프로그래밍 교양에서 배운, 공공데이터 및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과 수업에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정제 능력을 활용하여 전공에서 배운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 및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자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유도한다면, 학생들은 데이터 및 경제이론의 활용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한다면, 경제학 이론과 실무능력을 모두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전통적인 경제학은 오랫동안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해 왔다. 합리적 인간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인간을 뜻한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 이론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시장 분석과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과 그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합리적 인간 가정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p>			
<p>오늘날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선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 SNS, 영상 플랫폼, 배달 앱 등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는 사용자의 클릭 패턴, 검색 기록 등을 활용하여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합리적 인간처럼 모든 선택지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선택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p>			
<p>AI에 의해 소비가 유도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한 번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이후 다른 앱이나 SNS에서도 유사한 상품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여기에 “지금 많이 구매되는 상품”, “오늘만 할인”, “곧 품절 예정”과 같은 문구가 함께 제시되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실제로 필요한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충동성에 의해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는 사전에 계획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AI 알고리즘이 설계한 자극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p>			
<p>이처럼 오늘날의 소비 형태는 전통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합리적 인간은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필요와 효용에 따른 일관된 선택을 한다고 가정되지만, AI 시대의 소비자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환경 속에서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은 감정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이 유도되는 수동적인 존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p>			
<p>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행동경제학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으며, 감정, 습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종종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실제 인간의 행동을 현실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AI 알고리즘이 인간의 선택을 설계하고 유도하는 구조에서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분석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AI 시대의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경제학적 관점이 더 이상 보조적인 접근이 아니라 핵심적인 분석 틀로 자리 잡고 있다.</p>			
<p>이러한 흐름은 학문과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여러 국가에서 공공 정책 설계나 디지털 서비스 운영 과정에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책 설계에서 인간의 행동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예측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건강,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문제를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측면에서는, 해외 여러 대학에서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존의 경제학 교육에서 인간의 실제 선택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동경제학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인간 행동 예측의 도구로서 중요성이</p>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인간의 선택을 설계하고 예측하는 구조에서 행동경제학이 중시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AI 알고리즘이 소비 유도 패턴을 설계할 때, 기존의 합리적 인간 이론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은 이러한 비합리적 선택 과정을 설명하여, AI가 만들어내는 선택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 교육도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학에서 데이터 분석 능력과 함께 인간의 실제 선택 패턴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행동경제학을 필수적인 교과로 도입하면, 학생들이 AI 기반 데이터 환경에서 인간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 클릭 데이터, 플랫폼 이용 패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을 통해 AI가 설계한 선택 구조가 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는 인간의 선택 방식과 소비 구조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전통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 가정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학 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p>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p>	
<p>1. 강인공지능(AGI)에 대한 기대와 현실</p> <p>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성을 완전히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자의식을 가진 강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도래는 요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방대한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조합하여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 비추론형 모델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AI 석학이자 메타(Meta)의 수석 AI 과학자인 얀 르쿤(Yann LeCun) 교수는 “현재의 LLM은 물리 법칙을 이해하거나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통계적 패턴을 학습할 뿐”이라며 AGI 회의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지적처럼 현재의 AI는 입력된 데이터의 연관성을 계산해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AI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직시하고, AI를 도구로서 어떻게 통제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p> <p>2. 폐쇄형 구조의 기업 내 AI 활용</p> <p>비추론형 모델이라 할지라도 산업 현장에서의 효용성은 명백합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작업 보조 등에서 AI는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맥킨지(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연간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닙니다.¹⁾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업들은 AI 도입을 서두르면서도, 보안 위험성 때문에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삼성전자는 사내 PC를 통한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애플과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기업 AI 활용이 폐쇄형 사내망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굳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범용 모델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사의 기밀 데이터를 학습시킨 독자적인 폐쇄형 모델을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사의 AI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어떤 프롬프트로 최적의 결과를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AI 운용 노하우 자체가 기업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공유보다 기술의 파편화와 고립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p> <p>3.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p> <p>기업 간 노하우 공유가 단절된 상황에서, 결국 성과를 결정짓는 변수는 개인의 역량으로 귀결됩니다. 폐쇄된 사내 AI 모델 앞에서 직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는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비추론형 AI는 질문의 뉘앙스, 문맥, 조건 설정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두 명의 직원이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프롬프트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 업무 처리 속도와 결과물의 질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AI에게 어떤 맥락을 제공해야 하는지, 오류(환각)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오로지 사용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인재상은 AI라는 도구를 능숙하게 다뤄 최단 시간에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명령을 구조화하는 능력, 즉 문해력과 논리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해력이 요구됩니다.</p>	

4. 학부 커리큘럼 개편의 필요성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경제통계학부의 현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학부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 시사 경제 분석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제 데이터를 다루거나 도구를 활용하는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파이썬이나 R과 같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에도 미흡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실무에서 AI 도구를 접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반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학생들은 기업 현장에서 폐쇄형 AI 모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코딩 지식이 없더라도 AI에게 분석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이론 중심 커리큘럼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커리큘럼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AI 활용 경제 분석 과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복잡한 코딩 언어를 배우는 과정 없이도, AI 툴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실무 과목이 필요합니다. 자연어 프롬프트로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AI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코딩 교육의 부재를 메우고, 학생들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즉각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의사결정 캡스톤 디자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상의 기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습형 강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질문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를 체득해야 합니다.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비추론형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질문의 기술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5. 결론

강인공지능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필수가 된 기업 환경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보안을 위해 폐쇄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 폐쇄적 환경 안에서 AI를 다루는 능력은 순수한 개인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경제통계학부는 AI라는 도구를 사용해 결과를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하고 해석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전통적인 이론 교육과 함께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학부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백승일, 로봇신문, 2025.11.30., 맥킨지 “AI 시대는 인간-기계 협력의 시대”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p>AI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단순하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민원 처리나 문서 업무처럼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는 분위기다. 학생 입장에서도 과제나 공부할 때 AI를 한 번쯤 써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미 일상에 가까워졌다.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AI를 잘 활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료를 빠르게 찾고 정리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일을 줄여준다. 그렇지만,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걱정되는 부분도 같이 커진다고 느낀다. 먼저 생성형 AI는 답이 자연스럽고 그럴듯해서, 틀린 정보가 섞여 있어도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 쉬운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격차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같은 과제를 해도 AI 활용이 익숙한 사람은 더 빠르게 정리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방법을 잘 모르면 뒤처질 수 있어서 결국 AI가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원래 데이터를 다루고 경제 현상을 자료로 분석하는 전공 특성상 사회가 더욱 데이터 중심으로 바뀔수록 AI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전공 수업에서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 의미는 있지만, 그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AI 시대에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까지 이어지는 연결이 조금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물론 학생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학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덜 막막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전공 수업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뤄보는 경험을 더 늘렸으면 한다. 어려운 분석이 아니어도 괜찮고, 간단한 데이터라도 직접 정리해보고 그래프로 표현해보고, 결과를 읽어서 짧게 해석해보는 과제가 수업 안에 조금 더 포함되면 좋겠다. 요즘은 AI가 이런 작업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기본 흐름을 직접 경험해봐야 AI가 내놓은 결과를 무조건 믿지 않고 ‘이게 맞나?’ 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과목들 중 일부는 AI 활용을 허용하고, AI 활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강좌도 개설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실제 주식 시장이나 경제 흐름을 읽는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경제 뉴스를 꾸준히 보려고 해도 모르는 용어나 지표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금리, 환율, 물가, 고용 같은 기본 지표가 움직일 때 시장이 왜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실물경제나 기업 실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뤄주는 강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번씩 주요 이슈를 정해 놓고, 관련 기사와 지표를 직접 찾아 정리한 뒤 내가 이해한 흐름을 짧게 글로 써보거나 발표하는 방식이면 학생들이 경제를 더 능동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AI는 참고 자료를 찾거나 정보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수업에서는 AI가 만든 요약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출처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같은 지표를 두고도 해석이 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은 확실하고 어떤 부분은 불확실한지까지 점검하는 연습이 있다면, AI를 쓰더라도 사유의 과정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현실 경제를 숫자와 기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름의 논리로 연결해서 이해해보는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시장이나 정책 변화를 따라가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 같다. 진로 지원 측면에서는</p>			

학부 차원의 소규모 특강이나 멘토링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경제통계학부는 진로가 다양한 만큼 학생들은 선택지가 넓어서 오히려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기업·금융·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현직자나 선배를 초청해서 전공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학부생 때 어떤 준비가 도움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훨씬 현실적으로 진로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큰 행사도 좋지만, 학부 차원에서 현직자와의 비대면 질의응답이나 멘토링 처럼 소규모 형식으로 진행해도 질문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참여 부담도 줄어서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AI는 우리 사회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결과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경제통계학부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이룬 중심의 강점은 유지하되 실제 데이터를 다뤄보는 실습 경험을 늘리고, AI 활용을 늘려간다면,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더 자신 있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나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경제 시스템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인간의 판단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던 영역들이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동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학과 통계학의 역할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 현상을 수치로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통계학부는 AI 시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문 분야 중 하나라고 본다.</p> <p>우선 AI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AI 기반 자산 배분이 일반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물가, 고용,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필요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본다. 이는 경제통계학 전공자의 역할이 단순한 분석 보조를 넘어 핵심 의사결정 주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또한 AI의 확산은 노동시장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복적인 통계 처리나 기초 분석 업무는 점점 AI로 대체되는 반면,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결과를 정책이나 기업 전략으로 연결하는 고급 인력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학부 교육 역시 단순한 이론 전달에 머무르기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응용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나는 경제통계학부가 몇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존 통계학과 계량경제학 교육을 기반으로 AI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단순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경제 분석의 새로운 도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AI 모델이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p> <p>둘째, 실무 중심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경제학과 발전에 대해 고민하며 강조했듯이, 이론을 실제 경제 현상에 적용해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금융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기업과 연계된 데이터 분석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현실 문제를 직접 다뤄볼 수 있다면 학습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한다면, 학생들은 AI와 통계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p> <p>셋째, 글로벌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석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I 기반 경제 분석은 국경을 넘는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경제 데이터와 각국의 통계 기준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 경제, 글로벌 금융 데이터 분석 과목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경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p> <p>마지막으로 나는 AI 시대일수록 윤리와 사회적 책임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AI 기반</p>			

통계 분석은 신용 평가, 채용, 복지 정책 등 민감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못된 분석이나 편향된 데이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학부에서도 데이터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을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AI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통계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과정의 혁신, 실무 중심 학습, 글로벌 시각, 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경제통계학부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학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p> <p>최근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일상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AI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윤리적·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복합적이다. AI의 긍정적인 영향은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별 수준에 맞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를 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ITU가 주도하는 ‘AI for Good’ 이니셔티브는 AI를 활용해 보건, 교육, 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AI는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AI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p> <p>그러나 AI의 확산은 동시에 여러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다. AI는 그럴듯한 문장과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류나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사용자 중 75%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오류를 수정해야 했으며, 평균적으로 주당 4.5시간 이상을 AI 결과 검증과 수정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활용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더 나아가 AI 기반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은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 생산을 단기적 글로벌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하며,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AI가 대규모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p> <p>필자는 졸업을 앞둔 20대 대학생으로서, 인공지능의 확산이 향후 취업 환경과 전공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AI는 이미 경제 분석, 통계 처리, 데이터 기반 예측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복잡한 경제 지표 분석이나 시나리오 예측 역시 AI를 활용한 자동화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통계 전공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가져온다.</p> <p>그러나 AI가 경제 분석을 수행한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과 예측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현실 경제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조건을 고려해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즉, AI는 도구이며 최종적인 해석과 책임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경제적 사고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I 도구를 단순히 ‘다룰 줄 아는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AI가 제시한 결과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제학적 이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핵심 역량으로 요구될 것이다.</p> <p>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통계학부의 교육 방향 역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AI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교육은 분명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전통적인 경제학 교육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시·거시경제학, 경제사, 경제사상과 같은 기초 이론 교육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론적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AI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숫자만 소비</p>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통계학부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인 경제 이해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또한 필자는 책상 앞이나 컴퓨터 화면 속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경제는 수치와 모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시장, 소비자, 정책 현장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 방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제 기업 사례 분석,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조사, 지역 경제나 산업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등이 경제통계 교육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경제 지표와 통계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체감하게 해주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경제통계학부는 ‘AI를 잘 사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AI를 활용하되,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현실 경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인간 고유의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교육, 경제 이론 중심의 기초 교육, 그리고 현실 경제를 직접 경험하는 실천적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경제학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 온 학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 경제학은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 국제수지와 같은 거시적 현상뿐 아니라 공공재와 환경 문제 등 시장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 학문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분석틀은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거친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구축의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p> <p>1980년 신설된 경상대학 경제학과는 이러한 전통 위에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은 물론 경제사, 경제사상사, 비교경제체제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경제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 왔다. 이후 2017년부터는 공공정책대학의 경제정책학 전공으로 개편되어 노동경제이론, 금융시계열, 경제개방과 국민경제, 한국경제사 등 보다 정책 지향적인 교과목을 중심으로 현실 경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은 기업, 금융권,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p> <p>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학과 통계학이 다루는 분석 대상과 방법론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며, 기업의 전략 수립, 금융 리스크 관리, 정부의 정책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기존의 이론 중심 분석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알고리즘 활용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p> <p>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의사결정의 자동화와 정교화이다. 과거에는 제한된 통계 자료와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던 영역들이 이제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 결과를 경제적·정책적 의미로 전환할 수 있는 인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 결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p> <p>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제통계학부는 기존 경제학 교육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학문적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량경제학과 통계학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론과 수식 중심 수업에서 나아가 실제 경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해석 중심의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p> <p>둘째, AI와 경제학의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머신러닝, 예측 모형, 금융 시계열 분석과 같은 AI 기반 분석 기법을 경제 현상 분석에 적용하는 교과목을 도입함으로써, 경제통계학부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경제 이론과 정책적</p>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경제정책학 전공의 특성을 살린 공공·정책 중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는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분석, 복지 정책 효과 측정, 금융 안정성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야에서 경제학적 이론과 통계적 분석, AI 기술을 결합한 교육은 공공 부문과 연구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도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AI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학과 통계학의 역할 또한 재정의되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온 경제통계학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학문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 이론과 정책 분석 역량에 AI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다면, 경제통계학부는 미래 사회의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학문 분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급속하게 발전하는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노동 시장,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자동화, 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상, 의사결정 속도의 극적 가속화 등 AI의 영향은 이미 금융, 제조, 정책 수립 등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통계학부는 단순히 통계 이론을 전수하는 교육 기관을 넘어, AI 시대에 적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p> <p>전통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기업 의사결정은 제한된 정보와 직관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책과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금리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머신러닝 모델로 수요를 예측하며,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경제 동향을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분석의 정확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동시에 통계 분석 능력과 데이터 해석 능력이 경제 전문가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p> <p>AI의 도입은 기계적·반복적 업무 중심의 직업을 급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입력, 기초적인 통계 계산, 단순 예측 같은 작업들이 자동화되면서, 경제 분석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제할 것인가'보다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할 것인가'라는 고차원적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AI 모델 해석, 알고리즘 감시, 윤리적 데이터 사용 등 새로운 전문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통계 전공자들이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닌 비판적 사고력, 기술 이해도, 윤리적 감수성을 갖추야 함을 시사합니다.</p> <p>정부와 국제기구들이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책 모의실험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기후 정책의 경제적 영향, 재정 정책의 효과, 무역 협상의 장기 귀결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데 고급 통계 기법과 AI 모델이 핵심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통계학 전공자들이 단순한 '통계가'를 넘어 '정책 과학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머신러닝 모델의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의 설명 불가능성, 과도한 자동화의 위험, 개인정보보호의 윤리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제 통계 전문가는 기술 능력만큼이나 비판적 사고력, 윤리 의식, 인문학적 성찰을 갖추야 합니다.</p> <p>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제통계학부가 추진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AI 중심의 커리큘럼 혁신입니다. 현재 통계학부의 기초 과목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Python, R, SQL을 활용한 실제 데이터 분석 실습이 정규 교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학년부터 프로그래밍 기초를 차곡 차곡 학습하여, 고학년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머신러닝을 활용한 경제 예측', '딥러닝 기반 시계열 분석', 'NLP를 활용한 정책 문헌 분석', '강화학습과 게임이론의 경제학적 응용' 등 AI와 경제학의 융합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최신 AI 기술을 경제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p>	

두 번째 과제는 산학협력 및 실무 경험 강화입니다. 학부 차원에서 데이터랩 또는 경제 분석 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실제 경제 문제를 AI로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정책 과제나 경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학부생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거나, 이커머스 기업과의 협력으로 소비자 행동 예측 모델을 개발하며, 에너지 기업과의 공동 연구로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등 최신 AI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제통계 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해외 대학 교환 프로그램, 국제 데이터 분석 워크숍 참여, 글로벌 통계 기구와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국제적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준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제 통계학회, 계량경제학회, 데이터 사이언스 컨퍼런스 등에 학부생 논문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연구 펀딩과 멘토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강 과목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하거나,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영문으로 활용하는 훈련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 커뮤니티에서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진로 다양화 및 역량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공 정책 분석 트랙(정부 부처, 국제기구 진출 지향), 금융 데이터 분석 트랙(금융회사, 핀테크 진출 지향), 기업 데이터 과학 트랙(일반 기업 분석팀 진출 지향), 학술 연구 트랙(대학원 진학 지향) 등 진로별 맞춤형 교육 트랙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ython 데이터 분석 자격증, Google 데이터 애널리틱스 자격증, CFA, 정부 통계 관련 자격증 등 취득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경력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사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정책 연구원, 국제기구의 통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들의 경험담을 공유받을 수 있는 정기적 포럼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 직무 수행 방식과 경력 경로에 대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는 경제통계학부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고차원적 분석, 윤리적 판단, 창의적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면, 경제통계학부는 AI 시대의 가장 필요한 학문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기술, 경제학적 직관, 윤리적 감수성, 글로벌 감각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혁신, 산학협력 강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 인문학적 소양 개발, 진로 맞춤형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제통계학부의 학생들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를 넘어 AI 시대의 경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들이 미래 사회의 경제 정책 수립, 기업 경영, 국제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최근 챗GPT를 시작으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더 이상 영화 속 미래 기술이 아닌,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기술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검색, 금융 서비스, 콘텐츠 추천, 행정 및 상담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활용되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와 경제 활동 방식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산업 구조와 정책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AI 기술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글로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시민의 50% 이상이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장점과 신선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기술로 인한 불안감을 느낀 응답자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예상보다 빠른 기술 발전 속도가 사회적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진보가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p> <p>AI 기술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3~5년간 AI가 우리 삶을 크게 바꿨다’는 응답 비율은 49%였던 반면, ‘앞으로 3~5년간 우리 삶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응답은 66%에 달했다. 이는 AI 기술이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p> <p>특히 생성형 AI는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전체 업무의 약 10.1%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산업, 도매업 순으로 높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분석이 요구되는 산업일수록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p> <p>이와 함께 생성형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업무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근로자 3명 중 2명은 향후 자신의 업무 중 5~20%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AI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잠재적 생산 역량은 최대 62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기준 국내 GDP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수치는 생성형 AI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p> <p>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정책학 전공 경제통계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그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분석과 계량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산업별 AI 영향력, 생산성 증가 규모, 노동 시장 변화와 같은 수치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다. 따라서 경제통계학은 AI 시대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p> <p>이에 따라 경제통계학부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전통적인 통계</p>			

이론 교육에 더해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기반 분석 기법을 접목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보험업 등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형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와 고용 구조 변화가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교과목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영향 간의 균형 있는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는 우리 사회의 업무 방식과 산업 구조, 나아가 국가 경제의 잠재적 성장 경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수치와 데이터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경제정책학 전공 경제통계학부는 AI 시대에 사회와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학문으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인공지능(AI)은 현대 사회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며 경제, 산업, 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은 복잡한 사회·경제 현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개인과 조직,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 현상을 수치와 통계로 분석해 온 경제통계학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동시에 기존의 교육과 연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p> <p>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고도화이다. 과거에는 제한된 표본 자료와 비교적 단순한 통계 기법에 의존해 정책이나 기업 전략이 수립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술을 통해 보다 정밀한 예측과 판단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정책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며, 기업은 소비자 행동 분석, 수요 예측, 금융 리스크 관리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알고리즘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p> <p>또한 AI의 확산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 계산이나 반복적인 통계 처리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되는 반면, 데이터를 해석하고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고급 분석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고용 기회와 소득 수준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학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경제통계학 전공자는 단순히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AI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 <p>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통계학부는 교육 내용과 방식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의 통계학과 계량경제학 이론 교육을 유지하되, 이를 실제 데이터 분석과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과 실습 중심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 파이썬이나 R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경제 예측 분석 과목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AI 기반 분석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p> <p>둘째,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AI는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통계학부는 컴퓨터공학, 경영학, 행정학 등 타 학문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계 전공이나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 데이터를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셋째,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 방식 확대가 요구된다. 이론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 문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은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간 경제 격차, 청년 실업, 물가 상승과 같은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경제통계학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직접 체감하게 해줄 수 있다.</p> <p>이와 더불어 AI 시대의 경제통계학부는 연구 방향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이론 검증</p>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연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 고령화, 복지 정책 효과 분석과 같은 주제를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탐구함으로써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통계학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윤리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 강화도 중요하다. AI 분석은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침해, 결과의 왜곡 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학부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학생 개인의 성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I와 통계,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인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높은 적응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통계학부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업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성적 장학금 제도 또한 이러한 노력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AI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통계학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론과 기술, 실무와 윤리를 균형 있게 결합한 교육 혁신은 학생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AI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제통계학부의 변화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김대식·최재봉 (2020). 『AI 이후의 세계』. 동아시야.

이광형 (2021).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교육』. 김영사.

OECD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Publishing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AI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이다. 데이터 분석, 자동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직무를 창출하며 개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전공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일부 직무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p> <p>경제·통계 계열 전공 역시 예외는 아니며, 이로 인해 “결국 데이터 분석은 AI가 대신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경제학과 통계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역할은 무엇이며, 전공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p> <p>현재 AI 기술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단순 계산이나 반복적인 사무 업무는 자동화되며 감소하는 반면, 복합적인 판단과 해석,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고속런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양과 활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패턴을 도출할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정책 결정이나 경제 분석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사회적 파급효과와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p> <p>이에 따라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AI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통, 복지, 고용, 금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분석이 활용되지만, 알고리즘의 편향성, 책임 소재, 윤리적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술적 효율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통계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경제학과 통계학은 단순한 계산 기술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p> <p>AI는 분석을 보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과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역할은 인간의 몫이다. 특히 경제정책학과는 시장 분석을 넘어 정책과 제도 설계, 사회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학문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AI가 제시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판단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학과의 강점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에 있다.</p> <p>때문에, AI 시대를 맞이한 경제정책학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준비 방향은 상당히 명백하다. 모든 학생이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분석과 AI 도구를 전혀 다루지 못한 채 졸업장을 따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하다. 특히 비이공계 학생일수록 AI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 전공 학습 과정에서 실습 경험을 충분히 쌓기 어려운 부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한 학기 안에 이론과 심화를 모두 다루기 힘들고, 학점을 올려야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다 보니 단기간에 외우고 있</p>			

어버리는 학습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경제통계학부 커리큘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공선택 과목으로 3학점짜리 P/F 방식의 기초 AI·데이터 분석 실습 전공선택 I, II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학점 부담 없이 계량경제학적 분석 도구와 기본적인 AI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과목의 I은 높은 이론적 난이도보다는 실제 데이터 정제, 기초 회귀 분석, 분석 결과 해석과 보고서 작성에 초점을 두어, 학생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II에서는 그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여러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자료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계량경제학(입문) 수업에서 유사한 학습 경험을 했으나, 한 학기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심도 있는 실습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같은 수업이라도 방식이 과목마다 다르게 운영될 경우, 본래 의도와 달리 공식을 암기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과목이 도입된다면 이는 단순히 성적을 받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전공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또 대학원이나 다른 공공기업 및 사기업 취업을 준비할 경우, 해당 수업을 통해 본인이 잘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목의 개설을 통해 분석 과정에서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되, 그 결과를 정책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훈련을 강화한다면 경제정책학과의 정체성 또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학과 차원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학생 개인 역시 전공 공부를 단순히 학점 취득의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공되는 교육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공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AI는 우리들의 경쟁자가 아니라, 날개이다. 올바르게 활용할 경우, 전공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이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공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경제정책학과가 이러한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학과와 학생이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AI 시대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p>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p>			
<p>오늘날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경제통계학의 관점에서 AI는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기존의 학문적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p>			
<p>먼저 AI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변화는 경제 구조의 생산성 혁명과 노동 시장의 재편입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과거의 통계 모델이 포착하지 못했던 미세한 경제 신호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예측력을 높이고 기업의 의사결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는 기존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혹은 AI를 활용할 줄 아는 인재와 도태된 인재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보이지 않는 감시'나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추구해 온 경제적 정의와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p>			
<p>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핵심 학문인 경제통계학부는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AI 기술을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p>			
<p>첫째, 커리큘럼의 융합과 실전 역량 강화입니다. 전통적인 계량경제학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탁월한 강점이 있지만, 빅데이터 시대의 복잡한 비선형적 패턴을 읽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회귀분석 중심 교육에 파이썬(Python)이나 R을 활용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실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론으로 배운 경제 법칙이 실제 데이터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AI 모델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는 경험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실무형 리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p>			
<p>둘째, 데이터 윤리와 비판적 사고 교육의 전면 도입입니다. AI가 내놓은 수치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적 결과'일 뿐입니다. 학생들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과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병행하여 데이터 윤리 및 사회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교과목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감시하고 데이터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기술을 지배하는 글로벌 리더의 핵심 자질입니다.</p>			
<p>셋째, 실시간 경제 데이터 분석 허브의 구축입니다. 강의실 안의 정제된 데이터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학습하기에 부족합니다. 대학 차원에서 실시간 금융 및 공공 데이터 AP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PBL)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고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동 시장의 격차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식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효능감을 주고 학문의 실천적 가치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p>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경제통계학도는 수치를 다루는 기술자를 넘어, 기술을 통해 사회적 선을 실현하는 '통찰력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적 혁신과 데이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동반될 때, 우리 학부는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p>최근 인공지능(AI)은 특정 산업의 보조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개인의 삶의 방식까지 빠르게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은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정보의 생산·요약·분석이라는 지적 노동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과 기업 경영, 공공정책의 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결국 대학 교육이 제공해야 할 역량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 본 글에서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경제통계학부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p> <p>우선 AI는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가 기술 발전에 의해 대체되었다면, 최근에는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리서치 등 사무 기반의 업무도 AI가 일정 수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극단적 결론으로 귀결되기보다, 직무의 내용이 재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분석’이라는 업무라도, 단순 계산과 표 작성은 AI가 처리하는 비중이 늘고, 인간에게는 문제 정의, 데이터 선택, 결과 해석과 의사결정 연결과 같은 고차원적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AI를 대신하는 능력’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을 수행하는 능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p> <p>둘째, 기업과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이 데이터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과 직관에 근거한 전략 수립이 주요했다면, 이제는 고객 행동 데이터, 시장 반응 데이터, 금융·거시지표를 통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보험업, 유통 및 플랫폼 산업에서 AI 기반 수요예측과 위험관리 모델의 활용은 이미 실무의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와 통계를 함께 다루는 인재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통계학부는 그 중심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셋째, AI는 사회 전반의 정보 격차와 생산성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기회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AI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 편향이나 특정 집단에 불리한 예측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AI 확산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도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정책과 규제, 윤리 논의로 이어진다.</p> <p>이러한 사회 변화는 경제통계학부 교육에도 분명한 변화를 요구한다. 경제통계학부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 위에 통계적 분석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AI 시대에 강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현재의 교육 구조가 현실 변화에 맞게 설계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경제도 통계도 조금씩 아는 애매한 전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부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실무 역량을 반영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p> <p>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변화는 데이터 분석 역량의 전공 필수화이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파이썬이나 R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외부 강의를 통해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I</p>			

시대에는 코딩 기반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기가 되고 있다. 경제통계학부는 기초 통계학 지식에 더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며 분석하는 실습 중심 과목을 필수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실증분석 실습(회귀·패널·시계열)'과 같은 과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면 학생들의 실전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AI 및 머신러닝 과목의 도입 및 경제학적 연결 강화이다. 경제통계학부 학생들이 머신러닝을 배우더라도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학습"에서 끝나면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경제·금융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델과 경제지표 분석', '금융 리스크 예측과 분류 모델', '소비자 수요예측과 마케팅 데이터 분석' 같은 형태로 문제 중심 교육을 제공하면 전공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기술 교육이 아니라, 경제학적 문제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확장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세 번째로는 전공 진로 트랙의 명확화를 제안한다. 경제통계학부는 진로의 범위가 넓은 만큼, 학생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준비가 분산되는 문제가 생기기 쉽다. 또한 따라서 학부가 공식적으로 트랙을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트랙별 추천 과목과 학습 로드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계량경제 트랙', '금융데이터·퀀트 트랙', '보험·리스크 트랙', '데이터사이언스 트랙'처럼 구조화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학부 또한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해석력과 책임성이다. AI 분석 결과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 편향이나 모델 오작동의 위험을 항상 내포한다.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잘못된 분석이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학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결과를 정책이나 기업 의사결정에 적용해도 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윤리, AI 활용의 한계, 인과성과 상관관계의 구분 등을 명확히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해석과 판단 역량은 경제통계학부가 단순한 코딩 전공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AI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기업 의사결정, 정보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통계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통계학부는 경제학적 사고와 통계적 분석 역량을 결합한 전공으로서 AI 시대에 적합한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으나, 그 잠재력을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학부 운영의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 역량의 필수화, 머신러닝 교육의 경제학적 연결, 프로젝트 중심 실습 강화, 진로 트랙의 체계화, 그리고 윤리적·비판적 해석 역량 강화는 그 핵심 방향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경제통계학부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학생들은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	
기술 발전은 중립적인가: AI와 경제 불평등에 대한 고찰	
<p>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은 현대 경제의 기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산업 구조·노동시장·생산성부터 GDP 성장률, 사회적 불평등, 교육과 정책 대응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현실이 되었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와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AI 도입이 거론되며, 경제 성장률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p> <p>이때 기술 발전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돌아가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AI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AI의 경제적 효과를 단순 효율성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배·정책적 대응·불평등 구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본다.</p> <p>AI는 우리의 경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AI 도입이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약 12.6%까지 증가시킬 잠재력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이는 AI가 단순히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성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론적으로는 AI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하고 장기 GDP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p> <p>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 상승이 모든 개인의 후생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이다. 나는 성장률 수치만으로 정책적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성장의 질, 특히 노동자의 소득, 고용 안정성, 사회 이동성은 GDP 증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다. AI 성과를 단지 수치적인 성장으로만 보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p> <p>AI 도입이 확대될수록 노동시장은 재편과 이질화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절반가량이 AI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 부분은 AI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에 놓여 있다.</p> <p>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다. AI의 도입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며 이는 저숙련·중간 숙련 계층의 노동 수요를 축소한다. 반대로 AI와 협력하거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고숙련 기술·직무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고임금이 붙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p> <p>나는 이러한 불평등 확대 현상을 AI 기술의 구조적 편향이라고 본다. 기술적 변화는 종종 중립적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자본·교육·기술 접근성의 불균형을 강화한다. AI로부터 혜택을 얻는 계층은 이미 높은 교육 수준·자본력을 가진 집단이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 이는 단순한 노동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이동 사다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p> <p>AI가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만 있는 건 아니다. 적절한 제도적 개입이 있다면 AI는 포용적인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AI 기반 금융 기술은 과거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술이 제대로 활용될 때 포용적인 경제 참여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p> <p>또한 AI의 도입은 단지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p>	

연구에 따르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직무 수요를 확장하고 있으며, AI와 협력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기술이 직무 대체를 넘어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자체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정책 체계가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AI가 경제 성장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체에 균등히 돌아가지는 않는다. 노동시장 재편 속도에 정책이 미치지 못할 때 계층 간 격차는 빠르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 대부분이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기술 변화가 실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재교육·훈련 등 시스템의 혁신적인 재구성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 시스템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AI와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핵심적인 인재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강화이다. AI로 인해 실직 위험이 커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예를 들어 실업 지원, 직무 전환 지원, 기본소득과 같은 실험적 정책은 장기적인 사회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셋째, 공정한 기술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다. 기업이 AI 기술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사회 전체에 환원되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AI는 분명히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의사결정의 정교화라는 측면에서 AI는 기존 경제 구조가 가진 한계를 빠르게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를 살펴보면 AI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성과가 자동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무런 제도적 개입 없이 기술 발전만을 추구하면 AI는 기존의 소득 격차와 사회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AI 문제의 본질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AI는 중립적인 생산요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집단에 훨씬 유리하게 작동한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기면 기술 발전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상위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를 방치한다면 AI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과제는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이 이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본다. AI가 반복적·정형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낙관적으로는 개인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교육과 직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AI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증가분이 기업의 이윤이나 특정 산업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역시 중요하다. 기술 발전으로 확대된 경제적 잉여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투자될 때 AI는 비로소 위험한 기술이 아니라 공공적인 자산으로 기

능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 효율성 자체를 높이는 전략이기도 하다.

결국 AI 시대의 경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우리는 AI를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나는 AI가 경제 성장의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압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경제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p>주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p>			
<p>생산성 측면에서 바라본 AI 발전이 미치는 영향</p>			
<p>생성형 AI, 무인 로봇, 추천 알고리즘 등 우리 일상에는 점점 AI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AI 영향력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기존의 일자리 감소, 고용 감소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산성 증가, 새로운 일자리 증가 등의 전망을 내비치는 사람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에서도 AI 시대에 따른 ‘생산성 증가’에 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p>			
<p>경제에서 생산성이란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해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양을 의미한다. 생산성의 결정요인으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기술지식, 천연자원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은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 중에서도 AI는 특히 물적자본, 인적자본, 기술지식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중점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p>			
<p>우선 물적자본이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와 구조물의 저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적자본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수가 가구를 만들 때 톱, 선반 기계, 드릴 등의 장비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장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목수가 그렇지 않은 목수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양의 가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AI의 발전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해당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장치가 기본적으로 내재된 생산요소가 늘어날 것이며, 나아가 머신 러닝 기술, 즉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보조도구로 AI를 사용할 수 있다. AI의 도움 없이 생산하는 노동자보다 AI 장치가 내재된 생산요소를 활용하고, AI를 적극적인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더 많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I가 발전하면 물적자본이 향상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p>			
<p>다음으로 인적자본이란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이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인적자본과 생산성도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AI 기술의 발전은 인적자본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¹⁾“AI 생산성의 역설”에 따르면 AI는 특히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비가시적 멘토’ 역할을 한다고 한다. (《디지털포용뉴스》, 2025) AI의 발전은 비숙련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것이며 숙련자들 또한 AI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생산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I는 사회 전반의 평균적인 인적자본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p>			
<p>마지막으로 기술지식이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이때 기술 지식은 사회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움직인다.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면 사회의 기술지식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²⁾《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딥러닝 프로그램을 ³⁾오픈소스를 통해 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딥러닝 응용 서비스를 발전시켰다고 한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학생들도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편리한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박상길·정진호, 2024) 이처럼 AI가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들이 오픈소스를 통해 공개된다면 사회가 가진 기술 지식이 발전하고</p>			

이는 또 다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물적자본, 인적자본, 기술지식의 발전과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⁴⁾“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가계조사를 바탕으로”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활용으로 업무시간이 평균 3.8% 단축(주 40시간 근무 시 1.5시간)되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1.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물리적 AI에 노출된 근로자 역시 11%에서 향후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육체노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KDI》, 2025)

물론 이러한 AI의 도입이 바로 생산성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¹⁾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재설계, 인프라 확장, 인력 재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이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포용뉴스》, 2025) 앞서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하였듯이 AI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는 이어졌지만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측면에서 AI 기술의 발전을 분석한 이유는 경제통계학부의 입장에서 AI를 단순히 낙관적 또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는 단기, 장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며 경제 이론과 실제 경제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생산량, 물가수준, 실업, 총수요, 총공급 등 경제는 많은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AI의 발전과 경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면, AI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AI 생산성의 역설”. 《디지털포용뉴스》. 2025.12.07.

<https://www.dginclusi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

2) 박상길·정진호.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 비즈니스북스. 2024.10.22.

3)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

4)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KDI》. 2025.08.18.

<https://ie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7385>

글로벌 경제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보고서

학번		성명	
<p>주제: AI 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통계학부의 구체적인 변화 제언</p>			
<p>AI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영상 콘텐츠의 제작 진입장벽은 급격히 낮아졌으며, 개인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프로슈머로 활동한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영상은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시각·청각적 사실성을 갖추며 뉴스 형식의 콘텐츠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 접근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도 함께 노출시킨다. 본 보고서는 AI 영상이 뉴스 소비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획득하고, 그 결과 어떤 경제적·법적 피해를 일으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p>			
<p>AI 영상 기반 가짜 뉴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AI 영상 가짜 뉴스는 단순한 허위 정보 전달을 넘어, 신뢰감 있는 외형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텍스트 기반 가짜 뉴스와 구별된다. AI로 생성된 인물은 실제 공무원, 전문가, 기자 등의 정체성을 빌리며, 음성과 표정, 말투를 통해 시청자에게 권위와 전문성의 환상을 제공한다. 이는 인간이 시각·청각 정보에 더욱 신뢰하는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식이다.</p>			
<p>5개월 전 게시된 한 유튜브 AI 영상 기반 가짜 뉴스 영상은 게시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약 30만 회, 댓글 600여 개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 화자는 AI로 제작된 인물로, 자신을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다. 해당 영상은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되어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쓰레기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 제도와 무관한 허위 정보였으나, 댓글 다수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규정의 과도함과 행정 당국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리배출 지침 개정,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해명하였다.¹⁾</p>			
<p>이 사례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전체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첫번째는 행정 신뢰 비용 증가이다. 정부 부처는 사실무근의 정보에 대해 해명해야 했으며, 이는 행정 자원의 비생산적 소모로 이어진다. 두번째는 사회적 거래비용 상승이다. 시민들은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규정을 재확인해야 하고, 이는 시간 비용과 심리적 비용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수익 구조의 왜곡이다. 조회수와 댓글 수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에서 자극적이고 공포를 유발하는 AI 가짜 뉴스는 플랫폼 알고리즘상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강화한다.</p>			
<p>AI 가짜 뉴스 영상은 조회수, 댓글 수, 체류 시간 등 주요 플랫폼 지표에서 ‘성공한 콘텐츠’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정보의 정확성이나 사회적 효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즉,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량 지표는 실제 사회적 피해나 공익성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이 간극이 정책 판단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왜곡된 지표에 의존할 경우, 정책 판단이나 미디어 영향력 분석, 사회 여론 추정 과정에서 판단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p>			
<p>해당 사례에서 가장 큰 법적 문제는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이다. AI로 생성된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며, 발화 내용 또한 자동 생성 혹은 편집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이 제작자, 플랫폼, AI 도구 제공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체계는 AI 생성 뉴스 영상에 대한 명확한 규율 기준을 아직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p>			

로 인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여지가 남아 있다.²⁾

본 보고서는 AI 영상 기반 가짜 뉴스가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 경제적 손실·통계 왜곡·법적 공백을 동시에 일으킴을 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AI 영상이 어떻게 신뢰를 가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플랫폼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통계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보의 정확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재설계가 시급하며,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 조치와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짜 뉴스로 인한 통계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교란을 막고, AI 기술이 사회적 실질 가치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계량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는 향후 경제·사회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YTN, 「[자막뉴스] ‘쓰레기 잘못 버렸다간 과태료’ …온라인서 퍼지는 정부가 밝힌 입장」, YouTube 영상, 2025년 10월 21일 게시, https://youtu.be/0id9BjR7T50?si=1FZDYeaB_Z59beL5.

2) 선거·성범죄에 관한 ‘딥페이크’ 규제… 비선거 기간 ‘가짜뉴스’ 대응 공백, 로이슈 (LawIssue), 2026년 1월 12일,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1121937194722f6e2c25b70_12.